

Provincial Economic Trends in China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11년 4월 15일

주요 성(省)별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8): 광둥(廣東)성

정 지 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jhjung@kiep.go.kr, Tel: 3460-1280)

- ▣ 2011년 1월 26일 광둥성 제11기 인민대표회의 4차 회의에서 향후 5년간 광둥성 경제·사회 발전의 청사진이 될 ‘광둥성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12차 5개년 계획 강요’가 통과되었음.
- ▣ 광둥성은 중국경제를 선도하는 중점지역으로, 12·5계획 기간 동안 질적 성장 추구를 최대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장(珠江)삼각주 지역을 중심으로, 대중의 복지향상을 통한 ‘행복한 광둥’ 만들기를 추진할 계획임.

 - 성장률 목표의 하향 조정과 함께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산업 육성, 혁신능력 배양, 내수확대, 대외무역전략 전환 등을 통한 경제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임.
 - 광둥성 정부는 경제구조조정의 목적이 ‘행복한 광둥’을 만드는 데 있으며, 구조조정을 통해 민생문제를 개선할 계획임.
- ▣ 최근 주장삼각주 지역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산업고도화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광둥성 진출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

 - 광둥성은 현재 중국에서 최저임금 수준(1,320위안)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광둥성에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광둥성의 외곽지역이나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공장 이동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은 지역 이전보다는 노무관리 및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임.

차례 ●●●

1. 개요
2. 광둥성 11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주요 성과
3. 광둥성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4. 평가 및 전망

1. 개요

- 2011년 1월 26일 광둥성 제11기 인민대표회의 4차 회의에서 향후 5년간 광둥성 경제·사회 발전의 청사진이 될 '광둥성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12차 5개년 계획 강요 (廣東省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綱要)'가 통과되었음.
- 2011~15년 광둥성 경제·사회 발전의 목표 및 방향 등이 발표됨.

그림 1. 광둥성의 위치와 개요



자료: 위키피디아, 『廣東統計年鑒2010』, 『2011年廣東省人民政府工作報告』.

2. 광둥성 11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주요 성과

- 광둥성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6~10년 11차 5개년 계획(이하 11·5계획) 기간 동안 발전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여 22년 동안 경제규모 1위 자리를 고수함.

- 광둥성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1·5규획 기간 동안 연평균 12%의 속도로 성장하여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인 싱가포르, 대만, 홍콩의 경제규모를 추월하였음.
- o 2010년 한국의 경제규모는 달러로 환산할 경우 약 1조 143억 달러로 광둥성의 1.5배에 달하나 2005년 이후 광둥성의 GRDP 증가액은 한국을 추월하였음.

표 1. 광둥성 11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성과

유형	지표	목표치		실제치			목표달성 여부
		2010년	연평균 성장률(%)	2005년	2010년	연평균 성장률(%)	
경제 발전	GRDP(억 위안)	33,500	9	22,557	45,636	12	○
	1인당 GRDP(위안)	34,400	8	24,647	46,990	11	○
	소매판매액(억 위안)	14,000	12	7,916	17,415	17.1	○
	수출입규모(억 달러)	6,800	10	4,280	7,847	12.9	○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	45	-	43.3	44.6	-	○
	연구개발비의 GRDP 대비 비중(%)	1.8	-	1.12	1.8	-	○
	도시화율(%)	65	-	60.7	64.0	-	X
	GRDP 단위당 에너지소비 감축(%)	16	-	-	16	-	○
사회 발전 및	상주인구(만 명)	9,730	1.14	9,194	9,730	-	○
	기대 수명(세)	75	-	74.8	75.3	-	○
	대학진학률(%)	28	-	22	28	-	○
	도시 등록실업률(%)	약3.8	-	2.6	3% 이내	-	○
	도시 양로보험 적용인원(만 명)	2,180	7	1,565	2,730	-	○
	도시 의료보험 적용인원(만 명)	2,200	-	1,235	2,820	-	○
민생 복지	신형 농촌합작의료 보급률(%)	85	-	50.5	98.3	-	○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위안)	19,300	5.5	14,770	23,898	7.5	○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위안)	6,300	6.0	4,690	7,890	8.0	○
	경작지 보유량(만 헥타르)	291.4	-	-	291.4	-	○
	산림녹화율(%)	58	-	57.5	57	-	X

자료: 「廣東省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綱要」.

- 11·5규획 기간 동안 투자를 중심으로 소비 및 수출의 3대 동력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며 광둥성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였음.
- o 2006~10년간 광둥성 고정자산투자의 연평균 성장률은 17.6%, 소매판매액의 성장률은 17.1%에 달했으며 수출증가율은 13.7%를 기록함.

■ 선진 제조업 및 고급 서비스업의 발전, R&D 투자 확대, 기술개발 등을 통해 광둥성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었음.

- 광둥성의 산업구조는 2005년 6.3:50.4:43.3에서 2010년 5.0:50.4:44.6로 조정되었으며, 이는 주로 자동차, 선박 등 선진 제조업의 발전 및 금융, 물류, 정보·기술 서비스 등 고급 서비스업의 비중 확대, 혁신능력 향상, 신산업 발전 등에 기인함.
- R&D 투자의 GRDP 대비 비중이 1.12%에서 1.8%로 확대되었으며, 기술자급률은 45.4%에서 65%로 향상됨.

■ 주장삼각주 일체화 계획이 보다 구체화되고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짐.

- 2020년까지 한국의 경제규모를 추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주장삼각주지역 개혁발전 계획안(2008~20년)'이 2009년 발표된 이후, 주장삼각주 경제일체화 지도의 견 및 실천방안 등이 제시되었음.
- 주장삼각주 지역을 중심으로 고속도로 1,695km 및 철도 777km(이 중 298km는 고속철도)가 증설되는 등 교통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도시화율도 64%로 증가함.
- 광둥성 지역 내 '산업 및 우수노동력 이전(雙轉移)¹⁾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에 4,500억 위안이 투자되었고, 이에 따라 생산액이 2010년 1,850억 위안에 달하였음(그림 3 참고).

■ 목표보다 빠른 소득증가, 도농격차 완화, 일자리 확대, 무상 의무교육 전면 실시 등 민생부문이 개선됨.

- 광둥성 도시주민 가처분소득 및 농촌주민 순소득의 연평균 성장률 모두 목표치보다 2%포인트 높은 7.5% 및 8.0%를 기록하였으며, 최저임금이 5년간 73.3% 증가하였음.
- 광둥성 내 도농간 소득격차가 2005년 3.15:1에서 2010년 3.03:1로 축소되었음.
- 11·5규획 기간 동안 신규 일자리는 986만 개에 달했으며, 도시 등록실업률은 3%를 초과하지 않았음.

1) 쌍전이(雙轉移)라고 불리는 '산업 및 우수노동력 이전'이란 경제가 발전한 주장삼각주 지역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광둥성 동·서·북부지역으로 이전시키고, 광둥성 동·서·북부의 우수한 노동력을 해당지역이나 주장삼각주 지역의 2, 3차 산업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함(그림 2 참고). 이를 통해 주장삼각주 지역의 산업고도화 및 주변지역의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하여 광둥성 내 산업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

3. 광둥성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 광둥성은 중국경제를 선도하는 중점지역으로, 중앙 12·5계획의 중대목표이기도 한 질적 성장 추구를 최대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장삼각주 지역을 중심으로 대중의 복지 향상을 통한 '행복한 광둥' 만들기를 추진할 계획임.

가. 질적 성장 추구: 체질 개선이 급선무

- 12·5계획 기간 광둥성은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산업 육성 및 혁신능력 배양 등을 통한 경제의 질적 성장에 보다 주력하고자 함.
- 광둥성의 연평균 성장률 목표는 8%로 11·5계획 기간보다 1%포인트 낮고, 중앙의 목표 보다는 1%포인트 높은 수준임.

표 2. 광둥성 12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주요 목표

지표	11차 5개년 계획		12차 5개년 계획	
	목표	실제	목표	중앙 목표
GRDP(조 위안)	3.4	4.6	6.7	55
GRDP 성장률(%)	9	12	8	7
1인당 GRDP(만 위안)	3.4	4.7 (\$7,000)	6.6 (\$9,000)	(\$5,000)
1인당 GRDP 성장률(%)	8	11	7	-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	45	44.6	48	47
연구개발비의 GRDP 대비 비중(%)	1.8	1.8	2.3	2.2
도시주민 1인당 가치분소득 증가율(%)	5.5	7.5	8	7
농촌주민 1인당 순수소득 증가율(%)	6.0	8.0	8	7
고등학교 입학률(%)	80	86.2	90	87
기대 수명(세)	75	75.3	76.5	74.5
단위 GRDP 에너지소비 감축률(%)	16	16	16	16
단위 GRDP CO ₂ 배출 감축률(%)	-	-	17	17
산림녹화율(%)	58	57	58	21.7

자료: 「廣東省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綱要」, 「中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綱要」.

- 제조업 선진화, 고급 서비스업 발전, 전략적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대적 산업기지를 구축하는 것이 12·5계획 기간 광둥성의 산업발전 목표임.
- 핵발전 설비, 풍력발전 설비, 전력공급 설비, 디지털 선반 및 시스템, 해양 설비 등 5

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선진제조업 기지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집적회로 등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을 촉구함.

- 금융, 물류, 정보 및 과학기술 서비스, 비즈니스 회의 유치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광저우를 국가급 서비스업 종합개혁시범도시로 개발함.
- 전략적 신산업에 총 2조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첨단 전자정보, 신에너지 자동차 및 반도체 조명 등 3대 업종을 중심으로 바이오의약, 신소재, 신에너지, 항공, 환경보호, 해양 산업의 빠른 발전을 촉진함.
- 혁신시스템 구축, 혁신인재 육성, 제도 혁신 등 '혁신적인 광둥' 구축을 위해 R&D 투자를 증대하는 등 광둥성이 아시아 혁신의 중심으로 부상할 기반을 다질 것임.
-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교훈삼아 소비촉진 및 효율적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를 확대하고, 대외무역전략을 전환하여 경제의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려 함.
- 여행·레저 소비 확대, 농민의 가전 및 오토바이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추진하고 280개의 광둥성 중점 프로젝트에 대해 4,300억 위안을 투자하는 등 내수확대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함.
- 주장삼각주 지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 통신, 전력, 상하수도 등 인프라를 일체화(一體化)할 계획임.
- 대외의존도가 높은 광둥성은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일반무역 강화, 가공무역산업 고도화, 서비스무역 확대, 신규시장 개척, 선별적 투자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 최대 가공무역기지인 광둥성은 위탁가공기업의 법인화 및 내수판매 확대 등을 추진 중이며, 기존 OEM 방식 위주에서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및 OBM(Original Brand Manufacturing) 방식으로의 전환 등 가치사슬 업그레이드를 추구하고 있음.

■ 에너지 절약, 오염감축, 환경보호 등을 강화하여 자원절약형·환경친화형 사회를 구축함.

- 광둥성의 단위 소득 에너지소비 감축률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률 목표는 각각 16% 및 17%로 중앙정부의 목표치와 일치함.
-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 목표책임제 및 심사평가제, 오염감축 목표책임제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나. 복지 향상: '행복한 광둥' 만들기

- 12·5규획 기간 광둥성의 경제성장률 목표가 1%포인트 하향 조정된 데 반해, 주민소득 증가율 목표는 2~2.5%포인트 상향 조정되었음.
 -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및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의 증가율 목표는 모두 8%로, 11·5규획 기간의 실제 소득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임.
 - 이는 경제성장방식을 내수확대, 특히 소비확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함.
- 광둥성 정부는 경제구조 조정의 목적이 '행복한 광둥' 을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의 복지가 증진될 것이라고 밝힘.
 - 12·5규획 기간 동안 광둥성은 도시지역에 50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등록 실업률을 4% 이내로 유지할 것임.
 - 2011년에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의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 2012~15년에는 도시와 농촌에 균등한 공공서비스를 보급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 의료보험 가입률을 98%로 높이고 최저생계보장 기준을 연평균 10% 이상 증가시킴.
 - 또한 1인당 주택건설면적이 13m²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위하여 서민용 주택 180만 채를 건설하여 보급할 예정임.
 - 이 밖에도 의무교육 확대, 직업교육 세분화, 고등교육 수준 제고, 평생교육 시스템 강화 등을 추진함.
 - 2015년까지 직업학교의 재학생 수가 300만 명이 넘고, 고등학교 입학률이 90% 정도가 되는 등 사회초년생의 평균 교육연수가 14년에 이를 전망임.

다. 지역발전전략: 주장삼각주 일체화

- 인프라 구축, 산업배치, 도농통합 발전계획, 환경보호 및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주장삼각주 지역의 일체화를 추진하고 전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임.
 - 주장삼각주 지역 내 철도, 고속도로, 천연가스관, 송유관 등 인프라를 일체화하고 차량

통행료 연간 티켓 상호인증, 버스카드 및 통신비용 등을 통합할 계획임.

- 선진제조업, 경쟁력 있는 전통산업 및 농업을 기반으로 클러스터 구축, 상호협력 발전 등을 추진함.
- 이를 통해 2015년까지 주장삼각주 지역의 경제일체화를 기본적으로 완성할 계획임.
- 광저우-포산-자오칭(廣佛肇), 선전-동관-후이저우(深莞惠), 주하이-중산-장면(珠中江) 등 3대 경제권을 적극 육성하고, 상호간 이익의 보완 및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핵심 도시의 영향력을 보다 강화함.
- 각 경제권역 내부 및 상호간 조화발전을 위해 행정장벽을 제거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촉구함.
- 발전수준이 낮은 광둥성의 동서부 및 북부지역은 주장삼각주 지역과 '산업 및 노동력 이전(雙轉移)' 전략을 통해 발전을 모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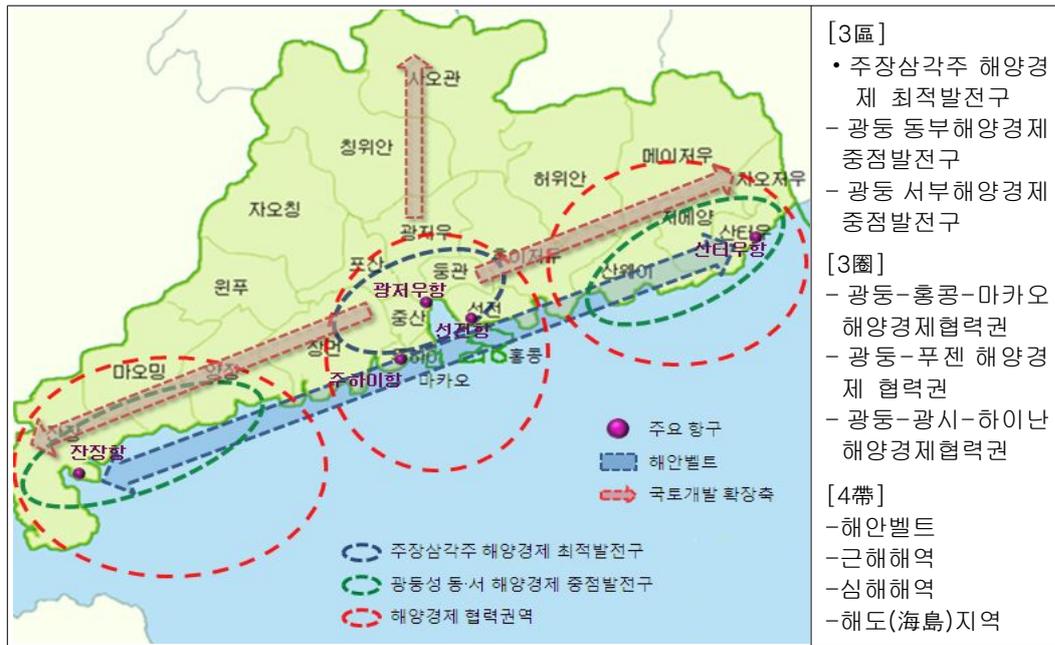
그림 2. 광둥성 '산업 및 노동력 이전' 전략도



- 산업이전 공단을 만들어 주장삼각주 지역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광둥 동서부 및 북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이전 및 협력을 지원함.

- 두 지역 간 노무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촌노동력이 직업훈련을 통해 현지의 2, 3차 산업에 취업하거나 주장삼각주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광둥성 동서부지역에 연해경제벨트를 구축하고, 광둥성 북부지역에 생태경제구를 조성함.
- 광둥 동서부 연해지역에 석유화학, 철강, 조선, 에너지 산업을 위주로 하는 중화학산업 벨트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중화학공업기지가자 물류기지, 신에너지 산업기지, 해양경제 발전시범구로 육성할 계획임.
- 이를 위해 800km의 철도와 920km의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또한 해양개발구역의 공간배치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해양경제종합개발실험구(海洋經濟綜合開發試驗區)를 구축하고 다양한 해양산업을 육성하여 해양경제 발전을 모색함.

그림 3. 광둥성 해양개발구역 공간배치도



- 광둥성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지역인 북부지역은 현대적 농업 및 생태관광 등 환경친화형 산업을 육성하고, 특수제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주장삼각주 선진제조업의 협력기지로 발전시킬 계획임.
-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하는 범(泛)주장삼각주 지역은 금융, 물류, 유통,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적인 경제권으로 부상하고자 함.
- 광둥-홍콩 및 광둥-마카오의 협력방안 협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지역경제 일체화를

추진하여 경제, 사회, 문화, 생활 등 다양한 부문의 통합을 이루어냄.

- 지역통합을 위하여 교통, 통신, 자원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육, 의료, 위생, 문화 등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최적화된 생활권을 구축함.

4. 평가 및 전망

■ 광둥성은 12·5계획 기간 동안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대중의 복지 증진에 큰 진전을 보일 전망이다.

- 광둥성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1%포인트)하고, 주민소득 증가율 목표를 상향조정(2~2.5%포인트)한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기보다는 광둥성의 자체적인 필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 노동집약적 산업과 가공무역 비중 및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둥성 경제의 특성상, 산업구조 고도화 및 자체 경제의 체질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내수확대, 특히 소비수요의 확대는 국민의 소득증대가 전제되어야 함.

- 또한 이번 12·5계획부터 ‘행복한 광둥’과 관련된 지표체계²⁾를 구축하여 매년 정부 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므로 민생문제 개선을 위한 시스템이 보다 완비될 것으로 전망됨.

■ 광둥성, 홍콩, 마카오 간 교통인프라가 확충됨에 따라 범주장삼각주 지역의 경제통합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주장삼각주는 개혁개방 이후 가장 빠르게 성장하다가 창장(長江)삼각주 및 환발해(環渤海)지역의 부상으로 기존의 성장추세를 잊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광둥성 정부는 2020년까지 홍콩 및 마카오를 포함하는 범주장삼각주 지역을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하고 사회, 문화, 생활권까지 포괄하는 지역통합을 이루어 세계적인 도시권으로 발전하겠다는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 광둥성 발전개혁위원회, 광둥성 정책연구실, 광둥성 통계국의 주관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행복한 광둥’ 지표체계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 지표에는 행복과 관련된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 해당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3~4월에 기본체계를 완성하여 2009년 데이터를 적용, 행복지수를 추정한 후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7월경 공개할 계획임.

- 광둥성이 제조업·중공업 위주의 첨단산업, 홍콩이 금융·무역·물류 위주의 서비스업, 마카오가 관광·레저 산업의 주축이 되어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한다는 구상임.
- 광둥성은 10·5계획 시기에 홍콩 및 마카오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한 이후, 11·5계획 기간까지 7차례의 보충협정을 통해 서비스 분야의 개방 및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이러한 지역통합의 선제작업인 광둥성-홍콩-마카오 간 교통인프라 구축이 12·5계획 기간 내에 기본적으로 완료되어 물류비용 절감, 인적·물적 교류 확대 등의 효과가 가시화 될 것임.
- 광저우-선전-홍콩 간 고속철도가 2014년 완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현재 2시간 거리인 광저우와 홍콩 간 이동시간은 48분으로 단축됨.
- 또한 광둥성 주하이-마카오-홍콩을 잇는 총연장 50km의 ‘강주아오(港珠澳) 대교’가 2015년 완공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1시간 거리가 15~20분으로 단축됨.
- 이 밖에도 광둥성의 서부 연해지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계획이 2011년 2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음.
- 광둥성은 산업구조조정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집약적 산업 및 우수노동력 이전(雙轉移)’ 정책을 12·5계획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이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함.
- 주장삼각주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진제조업, 하이테크 산업, 고급 서비스업 등의 발전이 저조할 경우 산업공동화(空洞化)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장삼각주 지역의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고급인재 부족 문제를 우수노동력 이전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임.
- 광둥성의 주요 수원지(水源地)인 광둥성 동·서·북부지역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을 이전하게 되면 해당지역의 환경오염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광둥성 전체의 경제발전에 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최근 주장삼각주 지역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고, 신산업 육성·고부가가치 산업 발전·가공무역산업 고도화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광둥성 진출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

- 2011년 3월 기준, 광둥성은 중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 광둥성의 성도인 광저우시의 최저임금이 지난 1월 18.2% 인상된 1,300위안으로 결정되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4월부터 선전시의 최저임금은 1,320위안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광둥성의 12·5계획에는 최저임금을 해당지역 평균임금의 40% 수준에 맞추어 인상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선전시의 2009년 평균임금은 3,895위안으로 이의 40% 수준은 1,557위안임.
- 즉 이번에 인상된 선전시의 최저임금 수준은 평균임금의 40% 수준보다 낮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임금인상 추세로 인하여 선전, 광저우 등지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광둥성의 외곽지역이나 중국 중서부 지역으로의 공장 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광둥성에 진출한 한국기업 중 대기업 협력사로서 동반 진출한 기업의 경우, 임금상승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다른 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필요성은 낮으나 노무관리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함.
- 현지에 진출한 대기업 역시 임금인상 등의 생산환경 변화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인상분을 고려하여 제품단가를 조정해주고 있음.
- 대기업 협력사인 한국업체들이 많은 선전, 둥관 지역에서 최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하여 납품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원활하게 제품 공급을 했던 다른 업체는 이후에 더 많은 주문을 받았음.
-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광둥성의 내수시장, 특히 의료 및 교육 등의 서비스 시장을 목표로 하는 진출이 필요하며 홍콩을 그 교두보로 활용하는 전략도 고려되어야 함. **KIEP**